몸뚱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 증득해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그 악업·선업 업식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놓는 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된 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되놓고 되놓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십시오.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길을 딛고 일어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듯이.

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천이통 하면요,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이게 '불교' 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라면, 바로 교는 그렇게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통하는 거나 보이는 데서 통하는 거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통하는 거나…. 모두 우리네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구, 저거는 말도 못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저래.' 이러고 남을 원망한다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미국 말을 못 해서, 내가 못 해서 통하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네들이 못 해서 통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내가 못 듣는 생각은 안 하고, 그쪽에서 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쪽이 못 합니까? 모두 통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말을 못 하고 한국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이 국토가 한 국토지 두 국토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이통 해서 이게 통하는 거를 말하자면, 수없이 무전통신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너무도 잘 아시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로 표현해도 된다. 타심통을 탐지기로 표현해도 된다. 또는 천안통을 천체망원경으로 표현해도 된다. 신족통을 팩시밀리로 표현해도 된다. 우리네 이 살림살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지금이나 그 때나 세상이 바꾸어지고 변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었지 그 뜻은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그 입력됐던 데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 겁니다.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뜻이 있고 이렇듯이, 모든 게 그렇게 부딪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한 몸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나면, 싸움을 하거나 이런다면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동시지 어디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오신통이 그저 자꾸 같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 마음 한군데다 모든 것을 한데 뭉쳐놓으면 놓는 대로 통신이 되고 놓는 대로 작용이 되고 놓는 대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그놈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놈이 없으면 못 할 거고 그놈이, 모든 거는 영원한 친구 그놈이….'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자성불이라고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별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할머니 할 거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 할 때, 할머니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여보!" 그러면 "응,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 하고, "아버지!" 그러면 "얘, 언제 들어왔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멋진, 자성의 이 멋진 묘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두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사대가 통신이 되면 온통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로다가 입자가 돼서 들고 나면서 일들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유심이 다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작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이 공부를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절에 입산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속가에서 살림하는 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마찬가지죠. 입산을 해 가지고도, 살림을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내 살림, 내 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이 부처님 법에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나누어 먹고,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입고, 서로서로 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율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면서, 또는 입산을 해서 어느 도량에서 산다 하더라도, 형제들이나 한 가족을 차이를 두고 항상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내 아래야.' 하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내 스승이요, 내 아랫사람도 내 스승이요, 잘못하는 걸 봤을 때에 그 잘못하는 걸 보고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고 잘하는 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일체 만생, 만 중생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만물만생에 들고 나면서…. '들고 나며'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들고 나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나투는 부처님의 뜻은 불바퀴가 돌아가는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나투는, 화해서 나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부처님의 발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 포기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거고, 지수화풍이 있는 것도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말세가 됐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부처님의 법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현신입니다. 화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다시 요다음에 만나면 질문을 그런 걸로다가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로 그냥 떨어뜨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제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움죽거려야 컴퓨터도 움죽거리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을 다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죠.

그 마음의 뜻을,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부터 '마음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술 먹지 않고 또는 화투 치지 않고, 하하하, 또 나가서 잘못되지 않고, 가다가도 그냥 차에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군데다가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일체 만법을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는 것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다가 전부 넣으면, 그냥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하면 생산이 되는 건 저절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연탄도 그냥 가루로다가 다 몰아서 넣으니까 연탄이 되어서 나오고, 연탄이 되어서도 차곡차곡 나가는데, 연탄을 만드는 데서는 다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나누어 가는 데는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 일체 만 중생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도 물을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모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빗물을 아니 먹는 게 없는데도 그러니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고, 또는 온기가 항상 꺼지지 않게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 공기도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딛고 다니는 자기 흙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나 아님이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전부 나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뭐, 땅을 딛고 다니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셔서 먼저 작업할 게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과거 씨는 현실의 싹이 돼서 그 싹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과거로, 바로 내가 나기 이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놈이라는 걸 알고 무조건 '그놈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놈으로부터 해결해라. 그놈으로부터 나 아닌 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하고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놓는 작업으로써 생활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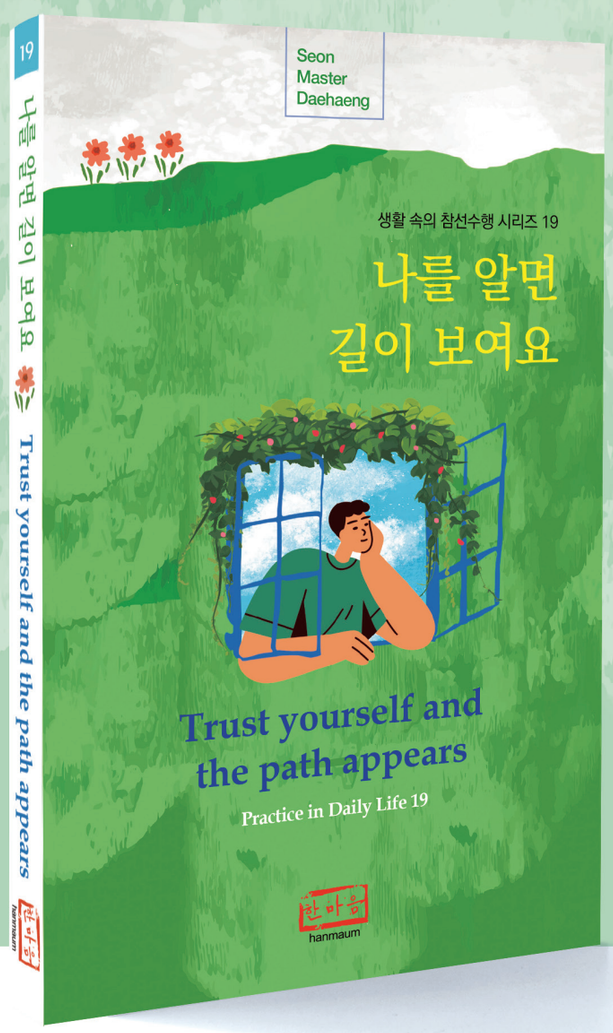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 부처님의 발 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